chudosa.com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딸 김민주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의 아버지, 그리고 많은 이웃분들께는 정겹게 '김 기사님'이라 불렸던 고 김영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이 우리에게 남긴 온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1958년 11월 3일 부산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서울로 올라오셔서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길을 묵묵히 달리셨고, 안전운행과 성실함으로 모범운전자 표창을 여러 차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상장보다 더 빛난 건, 하루의 끝마다 좌석을 한 번 더 살피고, 손잡이를 한 번 더 확인하던 그 습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약속을 지키는 분이었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운전대는 내려놓았지만, 아버지의 사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이유를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까진 아이에게 "괜찮다, 다시 올라타 보자. 핸들은 부드럽게, 마음은 단단하게." 하던 그 목소리, 따뜻한 저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늘 제 옆을 지켜준 가장 든든한 길동무였습니다. 새벽녘,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도로에서 아버지는 제 운전 연습을 봐주셨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때면 조용히 방향지시등을 켜고, 깊게 숨을 들이쉬라 하시곤 했습니다. "핸들은 부드럽게, 마음은 단단하게." 그 말은 운전 연습을 넘어 제 삶의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저는 늘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가르침은 설명이 아니라 체온으로 배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기사였지만, 집에서는 무엇이든 고치는 목수이자, 주말이면 낚싯대를 드리우는 강가의 손님이었습니다. 삐걱거리던 방문을 조용하게 만들고, 부엌 의자 다리를 맞추며 "급하게 하면 티가 난다."고 웃던 모습, 그리고 작은 작업대에서 자를 대고 연필로 얇은 선을 긋던 집중한 옆모습이 떠오릅니다. 서예 초급반에서 처음 쓴 글자가 '정직'이었다고 하시며, 획 하나를 얇게, 다음 획을 굵게 눌러 쓰는 법을 배웠다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날도 기억납니다. 주말 공원 산책길에서는 이름표 없는 나무에도 저만의 이름을 붙이시듯, 길 모퉁이마다 아버지의 유머가 한 줄씩 달려 있었습니다.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분명했습니다. 책임, 정직, 그리고 안전.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이정희 여사님 곁에서, 자녀인 저 김민주와 동생 김도윤, 그리고 손주 하윤, 지호를 향한 마음은 늘 먼저였습니다. 아버지는 퇴근길이면 주머니를 더듬어 따끈한 호떡 한 봉지를 꺼내시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보다 먼저 손에 쥐여주던 그 온기는, 우리 집의 저녁을 다시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아버지는 침착했습니다. 큰소리 내는 대신, 신발 끈을 한 번 더 조여 매듯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옆에서 두려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 ‘한 박자 쉬고 말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 배움은 우리 모두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벨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길에서도 자신이 믿어온 가치를 지키셨습니다. 평소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통해 두 분께 새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결단은 조용했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아버지는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이별의 소식은 2026년 3월 20일, 향년 67세였습니다. 짧다고 하기엔 가득했고, 길었다고 하기엔 단정했습니다.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는 이 시간, 우리는 슬픔을 숨기지 않되, 아버지의 삶을 기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단단히 붙잡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쉬어갈 정류장을 놓치지 않는 사람. 빗길에는 속도를 낮추는 사람. 혼잡한 시간에도 억지로 앞서기보다,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저녁이면 호떡 봉지를 들고 문을 열던 사람. 그 모든 장면을 하나로 엮어주는 건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와, 약속을 지키는 등 뒤의 넓음이었습니다.

남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도 분명해졌습니다. 길이 막히면 조급해하지 말 것. 서로의 안전벨트를 확인해 줄 것. 필요하다면 다음 정거장에서 잠시 내려 숨을 고를 것. 그리고 다시 출발할 것. 아버지가 일상에서 보여주신 지혜를 우리가 삶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집 안의 작은 삐걱임을 외면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건 함께 견디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전거를 잡아주던 그 손길처럼 등을 받쳐 주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핸들은 부드럽게, 마음은 단단하게.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을 곧게 쓰며,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퇴근길에 누군가를 떠올리며 작은 따뜻함을 한 봉지 사 들고 가는 기쁨을 잊지 않겠습니다. 길 위에서, 집 안에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당신의 운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사랑하는 아버지, 김영수님. 우리 곁에서 오래도록 안전한 길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닦아 놓은 그 길 위를,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당신이 남기신 약속과 온기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같은 방향의 노을 아래에서, 당신의 낮은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도사는 chudosa.com에서 작성되었습니다.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지금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를 생성하세요chudosa.com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